“한국전 당시 통도사, 육군야전병원이었다”

통도사, 관련자 新증언 공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가 한국전쟁 당시 육군 야전병원으로 활용됐다는 새로운 증언들이 공개됐다. 앞서 발표된 ‘용화전 복장물’, ‘대광명전 내 군인 낙서’와 함께 통도사가 제31육군병원 분원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7월 6일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을 확인하는 증언 자료들을 공개했다. 증언자 면담은 6월 29일과 7월 1일 증언자 자택 및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통도사 기획국장 지범 스님, 사회과장 정대 스님이 동석했다.

증언 자료에는 ‘위생병의 통도사 내 육군병원 목격담’부터 ‘통도사 육군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도구 발견’까지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을 확인해주는 증거들이 담겼다. 최근 발견된 대광명전에 낙서한 군인 중 한 명이 밝혀지기도 했다.

한국전 당시 위생병으로 근무한 국가유공자인 박기수 씨(부산 동구, 88)는 “통도사가 육군병원 분원이었다”고 확언했다.

박 씨는 전쟁 당시 학도병 1기로 지원해 제31육군병원 본원에서 위생병으로 근무했다. 그는 “통도사 경내에 제31육군병원 분원이 정확하게 있었다. 군수물자를 화물트럭으로 운송했으며 당시 정



박기수(88, 제31육군병원 위생병)

통도사 경내 병원 분원 존재
정양원 분원장 ‘중령 김승곤’
군수물자 전달… 공비 약탈도

양원 분원장의 이름과 직위가 ‘김승곤 중령’이었다”고 또렷하게 기억했다.

이어 “통도사 분원에 정기적으로 군수물자가 전달됐으며, 군수물자를 강탈하기 위해 공비들의 공격이 잦았다”고 밝혔다.

최근 발견한 대광명전 낙서 당사자로 보이는 증언도 나왔다. 故 고재석 씨의 자녀 고성록 씨와 고해록 씨는 “부친이 한국전쟁 당시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에 입원했었고, 병이 악화돼 통도사에서 전역 통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대광명전 낙서 중 ‘통도사 잘 있거라’가 부친의 글씨라고 주장했다.



고성록 · 고해록(故 고재석 씨 자녀)

대광명전 낙서, 아버지가 써
지병 악화돼 통도사서 전역
치료받은 군인 확인한 증언

고해록 씨는 “기사를 통해 아버지의 글씨체를 확인했다. 아버지께서 한학에 조예가 깊으셔서 족보 번역이나 작성하는 일을 하셨는데 자주 도와드려 아버지의 필체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으로 통도사를 다녀왔다고 했더니 어버지께서 ‘그곳에서 제대를 했다’고 말씀했다”며 “대광명전 낙서는 제대 통지가 오고 마음이 들떠서 썼던 것 같다”고 밝혔다.

통도사 측은 “당시 육군 병원에서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 복귀와 전역을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증언을 통해 통도사에서 치료받은 군인 중 일부가 통도사



김용길 씨(86, 해동중 재학생)

설암 스님과 함께 통도사 방문
화엄전, 환자 병실 사용 목격
병사들 불상 올라타는 등 훼손

서 곧바로 전역할 수 있었음이 확인됐다”면서 “국방부 기록에도 이 같은 전역 사항이 기록됐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또한 통도사 내 전각이 육군병원의 병실 및 행정사무실로 활용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증언자 김용길 씨(부산 연제구, 86)는 “1951년 당시 해동중학교에 재학중이었고 통도사 주지를 역임한 설암 스님과 함께 육군병원이 설치된 통도사를 방문했다”며 “보광중학교가 현 성보박물관 위치에 있었는데 군인들이 총검을 들고 출입시켜주지 않아 설암 스님이 상황을 설명해 줘 들어갈 수 있었다”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화엄전은 환자 병실로, 관음전은 지휘 통제실로 활용되는 등 각 전각이 군인들로 가득 찼고, 지장전은 교회로 활용되는 등 훼손이 심각했다. 대광명전 불상을 삐딱하게 돌려놓거나 올라탄 군인도 있었다. 군인들이 철수한 후 경전 및 중요 역사 자료가 불에 탄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신축 과정에서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에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도구가 발굴됐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관장 송천 스님과 권동현 박물관 관리직원은 “1994년 5월경 신축 박물관 토목 작업 중 박물관 정면 정원 일대에서 링거용 호스와 주사기, 약물병 등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도구를 발견했다”며 “당시에는 의료도구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성보박물관 우측 한 모퉁이에 묻고 터 작업을 한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향후 통도사는 근거자료와 사료를 모아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기획국장 지범 스님은 “호국불교의 역할을 한 통도사의 역사가 잊혀지면 안 된다”며 “국방부에서 회신이 없고 관련 부서가 없어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국방부 법사단과 연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천도재를 봉행해 호국영령과 유족들을 위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찰 ‘현판 · 주련’ 첫 전수조사… 통합 관리 나선다

문화재청, 오는 12월까지 DB 구축 추진

사찰에는 현판, 주련 등 다양한 기록물들이 있다. 전각과 함께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고 그 의미를 상기시키는 내용이지만, 일반인이 알기 어렵고 관리 소홀로 보존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문화재청이 사찰이나 궁궐, 관아 등의 현판, 주련, 비문, 묵서 등 부속기록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통합적 관리에 나선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보 · 보물로 지정된 건조물문화재 622건(국보 87건, 보물 535건)에 부속기록물 1,485개, 관련기록물 4만 579개를 최초로 전수조사해 지난해 12월 수집을 완료했다”면서 “오는 12월까지는 관련 자료들의 목록화(데이터베이스, DB)를 구축해 통합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7월 9일 밝혔다.

부속기록물은 현판 · 주련 · 비문, 묵서 등으로 건조물의 건립 취지, 중수와 변화, 관련 인물의 행적, 종교 의미 등을 담아 기록한 것으로 건물과 함께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건조물의 인문학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소중한 유산이다.

지금까지는 건조물 위주로 보존 · 관리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된 경향이 있었고,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방문자들은 현판이나 주련, 비문 등의 내용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명지대 한국건축문화연구소와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부속기록물 1485개(△현판 773개 △주련 419개 △비문 159개 △각자 85

국보 · 보물 건조물 622건 조사
불교 문화재 77%로 절대 다수
부속기록 관리 소홀 개선 전망

개 △묵서 49개)의 문양, 바탕색과 글자색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마쳤으며, 번역작업까지 완료했다.

또한 사진과 공문서, 고문헌, 보고서 등 관련기록물 4만 579개(△사진 1만 7692개 △공문서 1만 6867개 △보고서 2093개 △고문헌 1143개 △기타 2784개)도 수집해 통합 이력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을 완료했다.

조사 결과 대상 문화재 622건 중 불교문화재가 482건으로 전체 대상 중 77.5%에 달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궁궐과 관아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가장 많았다.

조사 과정에서 부속기록물의 하나인 주련의 누락, 부착 순서 오류 7건을 확인했고, 현판과 주련의 색상 · 문양 · 보존상태 등도 목록화했다.

조사 부속기록물 1485개 중 현판이 52%(773개), 주련이 28%(419개)로 전체 80%를 차지했다. 현판은 테두리가 있는 것이 436개며, 이중 화문(花紋, 꽃무늬)이 30%로 가장 많았다. 현판과 주련 모두 바탕색과 글자색은 흑색 바탕에 백색 글자(611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천자료 확보가 가능한 현판, 주련, 상량문 등 1177개에 대한 번역도 이뤄졌다. 이 중에는 현판이 743개로 제일 많았고, 주련이 419개로 뒤를 이었다. 현판의 경우 전각명이 262개(33.9%)로 다수를 이뤘다. 주련의 경우에는 게송이 250개(59.7%)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불교문화재에서는 주련의 60%가 게송임이 확인됐다.

향후 문화재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건조물문화재의 부속 · 관련기록물 4만 2천여 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화를 추진하며, 이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현판 · 주련 · 비문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공개하면 관련 연구자들의 학술 연구와 문화재 보존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화재청의 주요사업인 문화재 안내판 개선 작업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조물과 부속 · 관련기록물의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기준(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등)에 부속기록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정기조사 시 부속기록물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즉시 수리토록 할 것”이라며 “주기적 기록물 조사와 등록 등 체계적인 문화재보존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광주 코로나19 재확산 사찰 아닌 방문판매 ‘시초’

중대본, 7월 8일 발원지 공개
여론 뭇매 불교계, 유감표명

불교계 첫 감염사례이자 코로나 재확산의 계기로 지목됐던 ‘광륵사 관련 감염사태’가 애초 광륵사가 아닌 금양오피스텔 방문판매 모임이 발원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7월 8일 브리핑에서 ‘광륵사 관련 집단 감염’을 ‘방문판매 모임 관련 집단 감염’으로 분류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최근 역학조사 결과 광륵사 관련 첫 확진자가 사찰 방문이 아닌 6월 중순 방문판매업체 관련 모임으로 인해 감염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도 공식 프리핑을 통해 “광주 코로나19 재확산의 최초 감염원을 ‘금양오피스텔’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광륵사 발 집단 감염’ 등 용어로 지역사회 감염의 근거지로 오인되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아 온 불교계는 방역당국의 대처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이와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록 광륵사가 개인이 운영하는 사찰이기는 하나 그동안 광륵사발 지역사회 감염으로 방역당국이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서 보도함으로써 마치 사찰이 지역사회 감염의 근거지였다는 식으로 인식돼 왔다”며 “충분한 역학조사를 토대로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브리핑을 진행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방역당국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광주불교계도 이번 방역당국의 조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은 공지 문자를 통해 “광륵사가 최초 발원장소로 지목되면서 지역 불교계의 우려는 물론, 오랜기간 확산방지를 위해 헌신하신 사부대중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이제라도 정정이 되어 다행스럽다”며 “최초발원지가 명확히 드러나고 공식명칭이 변경된 만큼 각 언론사에서도 ‘코로나 광주불교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불교연합회 관계자는 “어려운 국난의 시대”라며 “단순한 질병을 넘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의 시대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통해 지혜롭게 극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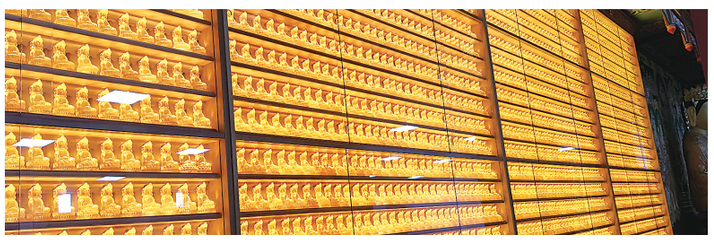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